



1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시티의 주장인 카일 워커(왼쪽) 등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시티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이 확정되자 그라운드를 질주하며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3 맨체스터 시티의 펠리 포든이 20일(한국시간) EPL 4연패를 확정짓는 뒤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역시 최강”... 맨시티 EPL 첫 4연패 금자탑

스페인 출신의 펠리 포든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사상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연패 대업을 달성했다.

맨시티는 20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EPL 최종 38라운드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3-1로 꺾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마지막 7경기에서 7연승을 달린 맨시티는 28승 7무 3패를 거두고 승점 91을 쌓아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친 아스널을 따돌렸다. 아스널(28승 5무 5패 승점 89)도 같은 시간 에버턴을 2-1로 제압했으나 승

점 2가 모자라 선두 탈환에 실패했다. 맨시티는 25일 오후 11시 지역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FA컵 결승전을 치른다. 여기서도 승리하면 맨시티는 두 시즌 연속 EPL과 FA컵에서 모두 우승하게 된다.

2003~04시즌 이후 20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아스널은 ‘한 곳 차로 맨시티에 밀려 2시즌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듯이 맨시티는 아스널과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쳤으나 막판 매서운 집중력으로 7연승 행진을 펼쳐 자력으로 우승컵을 가져갔다.

### 웨스트햄에 3-1 완승... ‘올해의 선수’ 포든 18분 만에 멀티골

이로써 맨시티는 2020~21시즌부터 4시즌 연속 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1992년 출범한 EPL에서 4연속 우승을 이룬 것은 맨시티가 처음이다.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이 지휘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두 차례 3연패(1999~2001년, 2007~2009년)를 이뤘으나 4연속 우승은 없었다.

EPL 출범 전에도 4연패를 이룬 적은 없었다. 허더즈필드 타운(1924~1926년), 아스널(1933~1935년), 리버풀(1982~1984년)

이 3연패를 해냈을 뿐이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챔피언을 포함해 트레블을 달성한 맨시티는 4연패를 포함, 최근 7시즌 동안 6차례 우승하며 역대 EPL 최강팀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굳혔다.

시즌 초반 주축들의 부상으로 주춤했던 맨시티는 지난해 12월 7일 애스턴 빌라전(0-1 패) 이후 리그에서 한 차례도 패하지 않고 23경기 무패(19승 4무)를 달린 끝에

대업을 이뤘다.

이날 경기에서 2023-24시즌 EPL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맨체스터 태생의 2000년생 미드필더 필 포든이 필될 날았다. 그는 경기 시작 1분20초 만에 페널티아크에서 전매특허인 왼발 중거리 슈트로 반대편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하게 찌르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18분에는 제레미 도쿠가 왼쪽 측면에서 넘겨준 땅볼 크로스를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일찌감치 멀티골을 완성했다. 2골을 추가한 포든은 올 시즌 19골 8도움을 기록했다.

자력 우승을 확정하기 위해 투지에 불탄 맨시티 선수들은 전반에만 슈팅 15개, 유효슈팅 10개를 쏟아내며 공세를 폈으나 전반 42분 모하메드 쿠두스에게 한방을 얻어맞았다. 코너리 상황에서 공이 근처에 떨어지자 쿠두스가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잠시 맨시티의 기세를 잠재웠다.

맨시티는 후반 시작과 함께 다시 공세를 폈고 후반 14분 로드리가 3-1로 달아나는 골을 터뜨려 우승을 바라는 홈팬들을 열광시켰다. 웨스트햄이 수비에 치중하자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 맨시티 미드필더들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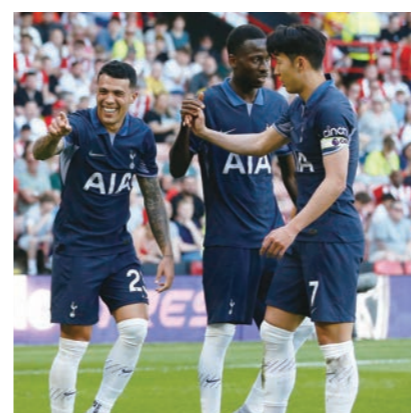
## 손흥민 ‘알찬 피날레’... 시즌 마지막 경기서 10-10 달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개인 통산 3번째 10골-10도움 고지를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밟았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셰필드의 브래몰 레인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3-24 프리미어리그(EPL)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선발 출격한 손흥민이 테안 쿨루세브스

키의 선제 결승골을 도우며 새 역사를 썼다.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32라운드에서 9호 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은 한 달여 만에 시즌 도움 개수를 10개로 늘렸다. 득점에서는 일찌감치 10개를 돌파해 17골을 기록 중이던 손흥민은 이로써 10골-10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10골-10도움을 기록한 것은 2019-20시즌(11골 10도움), 2020-21시즌(17

골 10도움)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다. 손흥민은 10골-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역대 6번째 선수로 올라섰다. 이 경지에 오른 선수는 손흥민을 비롯해 웨인 루니, 무함마드 살라흐(이상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퍼드(이상 4회), 디디에 드로그바(3회)다.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이 당연히 최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오른쪽)이 20일 시즌 10골-10도움을 달성한 뒤 팀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쇼플리 PGA 챔피언십 우승 역대 메이저 최다 언더파

젠더 쇼플리(미국)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서 자신의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달성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3위인 쇼플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캔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7609야드)에서 열린 제106회 PGA 챔피언십(총상금 1850만 달러) 대회 최종 4라운드를 버디 7개와 보기 1개, 6언더파 65타로 마쳤다. 스카티데일리·연합뉴스

쇼플리 2024 PGA 챔피언십 우승

미국 캔터키주 루이빌 발할라 골프클럽 기준(파기 7609야드)

순위	국적	선수	라운드별 최종 순회(타)	연타
1	미국	젠더 쇼플리	62 + 68 + 68 + 65 = 263	21
2	미국	브라이슨 디즈보	68 + 65 + 67 + 64 = 264	20
3	노르웨이	빅토르 호블란	68 + 66 + 66 + 66 = 266	18

21 언더파 263타 역대 메이저 최다 언더파 기록

중진 최다 언더파 기록

연도	대회	국적	선수	타수
2015	PGA 챔피언십	호주	제이슨 데이	20
2016	디옌	스웨덴	헨리크 스텐손	20
2020	마스터스	미국	데시린 존슨	20
2022	디옌	호주	캐머런 스미스	20

중진 최소타 기록

연도	대회	국적	선수	타수
2016	디옌	스웨덴	헨리크 스텐손	264
2018	PGA 챔피언십	미국	브룩스 켈카	264

연말뉴스 자료: PGA 챔피언십, 시즌 APP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